

2018년 11월 15일, 제주시 이도1동 이도1동경로당, 이현정 조사.

이계생(여, 1922년생, 제주시 이도1동)

-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태어나 22세에 결혼 후 일본과 평안도 신안주에서 2년 정도 생활하였다. 1945년 해방이 되자 제주도로 귀향하여 약 74년 간 이도1동에 거주하고 있다.

• 줄거리: 옛날 외동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. 하루는 엄마가 아이만 남겨둔 채 일을 나가면서 절대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하였다. 그런데 아이를 잡아 먹으려는 여우가 자신의 존재를 사람으로 속이기 위하여, 털이 난 손에 대나무 잎사귀를 감아 아이에게 만지게 하였다. 아이는 여우에게 속아 문을 열어주고 말았고, 결국 여우에게 잡아 먹히고 말았다.

[조사자] 들려줄 수 있인 뭐 재미난 얘기 엊어마씨? 뭐 여우 얘기라던가…….

[제보자] 여우, 여우 거 저 무신 거. 아이 어멍은 일 가 불고 아기는 영 뜰라정 누엇젠텁이.

동기간덜이 엇이난 어멍이 어디 가멍. 이건 그 할망덜 앗앙 막 하던 말. 하멍

“아, 누게 오란 문 올아 주지 말라. 문 올아 주민 안 텐다.”

경허난 이젠텁, 그말 들언 고만히 있는 디, 여우가 온 거라. 오란

“문 올아드라.”

안 올아 주난 대죽 잎사구로 손 영 헨 멘질락허게 터력 잇이난. 대, 대죽 잎

싼 거지 잎 싼 거로 영 이 풀에 잎을 영 감안. 감아네 이제 손을 영 허난 멘짝

헐 거 아니라게. 문 올아 주니까. 그 얘기는 제기 돌아나肯 헷인디 그 여우가 들

어오란 이제 문 올아 줘 부난. 게 아이는 바깟 디서 보드득 보드득 소리나난

“이거 무신 소리고?”

허난 무신 부름 소린가 무신 거엔 허멍 얘기를 오꽃 먹어분 거라. 경헷젠텁 현

말 들어낫어.

[조사자] 거난 잡아먹혀 분 거구나.

[제보자] 어, 거 먹언. 아기는 뭐 여우가 먹어분 거주게. 문 올아 줘 부난. 어멍은
“문 올아주지 말라.”
허난 영 감아네 창문으로 영 허난 멘질락 허난 문 올아 줏잰, 경헌 말. 게 여
우는 사름 역할을 헌 거지게. 경헷젠.
그 말은 할망덜이 일루와사멍덜 골아.

- 핵심어: 여우, 애기(아기), 어멍(어머니), 대죽(대나무), 터럭(털), 문